

한국 축구, 브라질에 대패 ... “빌드업 축구’ 계속”



▲ 손흥민이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에 압도당하며 1-5로 대패했다. ‘삼바 축구’의 위력 앞에 실력 차를 실감한 경기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일(한국시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전반 황의조의 동점 골 이후 내리 4골을 내주며 1-5로 완패했다. 브라질의 강력한 전방압박에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가 무너졌다.

이날 한국은 세계 최강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아시아권에서 통했던 벤투식 빌드업 축구는 브라질 앞에선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다. 브라질은 한국 진영 깊숙이 들어와 수비진을 압박했고, 뛰어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한 템포 빠른 패스와 정확한 연결로 한국 수비라인 뒷공간을 수시로 뚫었다. 브라질 공격수들은 공을 빼앗기면 곧바로 협력 수비로 공을 따내 오려 역습을 펼치며 한국을 위기로 몰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한국은 세계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제대로 모의고사를 치른 셈이다. 또한 빌드업 전술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됐다. 빌드업 축구가 제대로 먹히려면, 팀 동료와 상대 선수들의 위치를 재빨리 파악해 한 템포 빠른 패스나 돌파로 틈새를 노려야 한다. ‘퍼스트 터치’ 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브라질에 크게 졌지만, 파울루 벤투 감독은 후방부터 차근차근히 공격 전개를 해 나가는 점유율 축구, 이른바 ‘빌드업 축구’ 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 손흥민 ‘패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서 제외됐다.

2일 ‘스포탈코리아’에 따르면 PFA는 전날 2022 올해의 선수 후보 6인을 공개했다. 케빈 더 브라운너(맨체스터 시티), 해리 케인(토트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버질 판 다이크(이상 리버풀)가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외면받았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 35경기에 나서 23골을 몰아치며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페널티킥 골 하나 없이 1위에 오른 건 유독 눈부시다.

그의 맹활약 덕에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손흥민은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 후보에는 쉽게 이름을 올릴 거로 예상됐으나 또 한 번 외면받았다.

의아함을 지울 수 없다. PFA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SNS)에는 다수 팬이 ‘손흥민 제외’ 를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팀 동료 케인보다 더 많은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더불어 호날두보다도 5골이 나 더 넣었다. 손흥민이 호날두에게 밀릴 게 없는데, 둘의 희비는 엇갈렸다.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팬들이 뽑는’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제외됐다. 당시 많은 팬이 마뜩잖은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득점왕을 차지한 후, 정식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sportsmole.co.uk

더스틴 존슨, PGA 대신 사우디 리그 합류

남자 골프 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13위)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주도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출전한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최 측은 전날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런던 근교 웬트워스 센추리온골프클럽에서 8일부터 열리는 시리즈 첫 대회 참가자 48명 중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존슨을 비롯해 루이 우스트허즌(남아프리카공화국·20위), 재미교포 케빈 나(33위), 테일러 구치(미국·35위)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존슨은 2월 일명 ‘사우디 슈퍼골프리그’ 합류 소문이 돌 당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전념하겠다.” 는 뜻을 밝혔기에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 더스틴 존슨 사진=shutterstock

PGA투어 측은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벌금, 출전 정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상급 선수들의 이탈이 일어났다.

존슨은 1일 매니저를 통해 “나 자신과 가족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해 결정했다.” 고 전했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대회별로 총상금 2,000만 달러와 보너스 상금 500만 달러가 걸

려 있다. PGA투어 일반 대회의 3배 수준이다. 컷 탈락 없이 48명이 총 3라운드를 치른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가 PGA투어 동료 선수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필 미컬슨(52·미국·71위)은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 페인트/ 부엌
- 화장실/ 마루
- 타일/ 캐비닛
- 윈도우/ 지붕수리
- 전기/ 플러밍
-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